제4강 시간의 첫 번째 종합

(1교시)

◆반복의 층위
※학습목표: 주체의 개입에 따른 반복의 구분을 알아보자.

▲사상적 배경
-근대 환원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오늘날 현대의 존재론으로 넘어갈 적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이다.
-19세기말~20세기초의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물, 기계, 물체로 환원 불가능한 독특성을 강조했다. 이때 시간이 결정적인 매개가 된다. 『차이와 반복』에서는 '살아있는 현재le présent vécu'로 표현된다.

▲대상 안에서의 고찰과 밖에서의 고찰
「*대상 안에서 반복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반복의 이념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들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체 안에서 변화를 고찰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조건들을 넘어서서 차이의 일반적 형식 앞에 서게 된다.*」
-사물 자체만 본다면 반복을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주체 안에서의 변화를 고려할 때 반복을 얘기할 수 있다. 또한 반복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차이의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반복의 이념적 구성의 두 한계
「*또한 반복의 이념적 구성 안에는 일종의 사후적이고 소급적인 운동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두 한계[반복을 대상 안에서 고찰하는 경우와 주체 안에서 고찰하는 경우] 사이에서 성립하는 운동이다. 반복의 이념적 차원은 그 두 한계 사이에서 직물처럼 짜여나간다. 흄은 이 운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후적이고 소급적이란 것은 대상 자체만 얘기한다면 원래 대상 자체에는 없는 반복과 차이를 주체가 읽어 넣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대상 속에서 반복과 주체가 읽어내는 반복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를 묘사한 말이 soutirer다.
-이념적이란 말은 대자적, 주체적, 정신적이란 말이다.

▲반복의 이념적 차원에 대한 분석
「*반복의 이념적 차원은 그 두 한계 사이에서 직물처럼 짜여나간다. 흄은 이 운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때 그는 상상력에 의해 수축되거나 용해되는 경우들이 기억이나 지성 안에서는 여전히 구별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 그런가? 이러한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다른 경우를 산출하지 않는 물질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것은 상상력의 질적인 인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흄의 용어로는 수축은 연합association이고 용해는 dissociation이다.
-물질의 시간에서는 앞서 나왔던 것이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이 등장한다. 그래서 순수물질의 세계에서 수축이 없다. 다시 말해 기억이 존재할 수 없고,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www.artnstudy.com

-질적인 인상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마음mind에 영향을 준 인상impression들이 질의 방식으로 보존하고 조합한다는 뜻이다.

▲기억의 저장과 차원

*「**기억**은 자신의 고유한 '시간의 공간' 안에 특수한 경우들을 보존하고, 그런 가운데 이 경우들을 구별되는 경우들로 재구성한다. 그래서 과거는 더 이상 파지把持에 의한 직접적 과거가 아니다. 다만 재현에 의한 반성적 과거, 반성되고 재생된 특수성일 뿐이다. 이에 상응하여 미래도 역시 예지에 의한 직접적 미래로 남아 있을 수 없다. 다만 예컨대 반성적 미래, 지성에 의해 반성된 일반성이 되는 것이다.」*

-기억은 시간으로 되어있는 저장소, 공간이다. 그런데 기억은 막연하게 있는 그대로를 축적하지는 않는다. 일단 우리 기억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imagination에 의해 복잡하게 재구성된다.

-파지는 retention이다. 그런데 tent(ion)은 당긴다, 긴장한다, 압축한다는 뜻이다.

-현재에 있으면 과거는 흘러간다. 그러나 흘러가지만 현재 밑으로 주름 잡힌다. 그래서 이를 다시 당기게 된다. 미래는 아직 안 왔지만, 현재가 미래를 미리 끌어당긴다. 이것도 현재의 주름을 잡는다. 그래서 들뢰즈에게 미래는 현재의 또 다른 차원이다. 즉 있는 그대로 파지지 않고 우리 기억에서 재구성되고 반성된다.

-지금 현재가 특수성이라 한다면, 그 특수성의 또 다른 차원으로서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다. 들뢰즈는 그런 차원에서 일반성을 얘기한다.

▲수동적 종합과 능동적 종합

「지성을 통해 상상력의 기대는, 관찰되고 상기된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경우들의 수와 반비례적 관계에 놓인다. 이는 기억과 지성의 능동적 종합이 상상력의 수동적 종합과 중첩되고, 또 그 능동적 종합이 수동적 종합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력의 레벨에서는 수동적, 무의식적 종합이 발생한다. 여기서 무의식이란 말은 신체와 정신 사이의 모호한 영역 전체를 모두 뜻한다.

-능동적 종합 이전에는 우리 신체 및 무의식에서 이미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수동적 종합이 일어난다.

▲반복 구성의 층위

「그러므로 반복의 구성에는 이미 세 가지 층위가 함축되어 있다. 먼저 즉자의 층위가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반복은 사유 불가능하게 된다. 혹은 생성되고 있는 반복은 이 층위를 통해서 단지 와해될 뿐이다. 그 다음 수동적 종합에 따르는 대자의 층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층위에 기초한 반성적 재현의 층위가 있다.」

-뒤에 가면 유기체가 나온다. 유기체 자체가 이미 조합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즉자적 층위란 물질적 레벨이다.

-즉자적 층위가 있고 즉자적 층위도 어떤 면에서는 반복이 있다. 그러나 만약, 대자가 없다면 반복을 확인할 수 없다. 반복을 확인하는 존재가 없다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음 대자적, 무의식 층위가 있고, 마지막으로 능동적, 반성적 주체의 층위가 있다.

www.artnstudy.com

(2교시)

◆수동적 종합의 작동
※학습목표: 반복이 수동적 종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핀다.

▲즉자적 층위와 종합
-즉자적 층위도 이미 유기체적 레벨에서 종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즉자도 유기체와 무기체로 나눠야 한다.
-들뢰즈가 얘기한 것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 물질 자체에서의 조합이다. 순수 물질이 아닌 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인 한, 물질세계도 종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물질자체 내에서도 이미 원초적인 의미에서 종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종합은 우주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다.

▲들뢰즈와 연상주의
「이는 '우리에 대하여'라는 형식의 반성적 재현이며, 이 재현은 능동적 종합안에서 성립한다. 연상주의associationizm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미묘한 성격을 띠고 있다.」
-베르그송은 우리의 정신을 채우고 있는 이미지들이 끊을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한다. 질적으로 구분되지만 흐름이란 것이다. multiplicity이지만 그것이 element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베르그송이 말하는 잠재적 복수성, 질적 다양체다. 그래서 베르그송에게 질과 질이 상호침투inter-penetration한다. 이런 맥락에서 연상주의는 비판된다.
-들뢰즈는 연상주의를 재해석한다. 들뢰즈에게 흐름은 그냥 얽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요소들로 보인다. 베르그송의 모호한 흐름에 매듭과 마디를 주는 것이다.

▲끊어진 물질성
「그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베르그송이 흄의 분석들을 다시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가령 시계가 4시를 알린다고 하자. .....각각의 타종, 각각의 진동이나 자극은 순간적 정신mens momentanea인 다른 타종이나 진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순간적 정신은 라이프니치의 용어다. 라이프니치가 볼 때 정신monad는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물질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다. 극한으로 작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 타종은 다른 타종과 논리적으로 독립적이다.

▲수축의 필요성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어떤 내적interne/internal이고 질적인 인상 안으로 수축한다.」
-수축이 없다면 그 대상들은 완벽하게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표현 가능하다. 즉 공간에 완전히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데카르트는 연장적 실체les extension이라 했다.
-그런데 수축construction이 일어나면서 기하학적 표현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 존재방식이 질적인qualitative 것이 된다.

▲수동적 수축의 작동

www.artnstudy.com

「이 수축은 모든 회상이나 분명한 계산의 바깥에서 성립한다. 그 수축은 살아있는 현재 안에서, 지속으로서의 이 수동적 종합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후에 우리는 그 타종들을 어떤 보조적인 공간과 파생적인 시간 안에 다시 위치시킨다.」

-회상, 계산은 능동적 주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수동적 수축은 그 아래 차원에서 성립한다.

-보조적 공간은 이미 수동적 종합에서 이루어진 것을 능동적 주체가 사용하는 보조 공간이다. 그리고 파생적 시간은 숫자, 시계로 표현되는 시간이다.

-이미 수축은 회상이나 계산 이전에 성립한다. 그 밑에서 이미 수동적으로 종합되어진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보조공간이나 파생적 시간에서 다시 해석된다.

▲능동적 종합의 작동

「여기서 우리는 그것들을 재생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양화 가능한 외부적 인상들인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

-수동적 종합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지성 속에서는 그것들을 분석해서 외부적으로 분리시킨다.

-외부적이란 얽혀 있는 것을 해부해서 분석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수동적 종합이 이루어진 한참 다음의 일이다.

▲베르그송과 흄의 예.

「베르그송과 흄은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다. 베르그송의 예는 닫힌 반복을, 흄의 예는 열린 반복을 가리킨다. 베르그송의 예는 A A A A(띵, 띵, 띵, 띵)라는 요소들의 반복을, 그러나 흄의 예는 AB AB AB A.....(틱-탁, 틱-탁, 틱-탁, 틱...)라는 경우들의 반복을 가리킨다. 이 두 형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즉 흄의 예에서 차이는 단지 요소들의 일반적 수축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차이는 각각의 특수한 경우 안에서도 현존한다. 이 각각의 경우는 어떤 대립 관계를 통해 규정되고 결합되는 두 요소 사이에서 성립한다.」

-베르그송은 A A A A로 딱 네 번 일어난다. 하지만 흄은 AB AB AB A...로 나아간다.

-베르그송의 예는 A라는 각각의 요소들의 반복이고, 흄은 예는 경우들의 반복이다.

-베르그송의 예는 단지 요소들의 일반적인 수축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흄의 예는 각각의 특수한 경우 안에서도 수축한다. 각각의 경우는 어떤 대립 관계를 통해 규정되고 결합되는 두 요소 사이에 성립한다.

▲대립의 기능과 무한

「여기서 대립의 기능은 권리상 요소적 반복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 대립을 통해 요소적 반복은 가장 단순한 집단 안에 묶이고 둘이라는 최소치로 환원된다. (틱은 탁의 역전이다.) 따라서 차이는 일차적으로 취했던 일반성의 형태를 포기하고, 반복되고 있는 특수자 안에서 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생생한 일반성들이 태어난다. 반복은 두 요소로 환원된 '경우' 안에 갇혀있다. 하지만 어떤 새로운 무한이 열린다. 경우들 그 자체의 반복, 그것이 새로운 무한이다. 그러므로 요소들의 반복이 본성상 모두 닫힌 반복이라고 믿는 것은 오류이듯, 경우들의 반복이 본성상 모두 열린 반복이라고 믿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www.artnstudy.com

▲반복의 형태와 역할

「*경우들의 반복이 열려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이항 대립을 통해 요소들 사이에 폐쇄적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만 그러하다. 거꾸로 요소들의 반복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배후에 경우구조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만 그러하다. 이 구조들 안에서 요소들의 반복-총괄적 관점에서 바라본 반복-은 대립하고 있는 두 요소들 중 한쪽의 역할을 스스로 떠맡는다. 즉 4는 단지 네 번의 타종과 맺는 관계 안에서만 일반성을 띠는 것이 아니다. '네 시'는 지나갔거나 뒤따라올 30분과 더불어, 심지어 지각 세계의 지평에서는 아침과 저녁의 뒤바뀐 네 시들과 더불어 갈등 관계에 놓인다.*」

▲수동적 종합안에서 반복의 두 형식

「*수동적 종합안에서 반복의 두 형식은 언제나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즉 경우들의 반복은 요소들의 반복을 가정하지만, 요소들의 반복은 필연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넘어서서 경우들의 반복 안으로 들어선다.(틱-틱 일반을 어떤 하나의 틱탁으로 경험하는 수동적 종합의 본성적인 경향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간단한 반복을 볼 적에는 이미 그것이 복잡한 반복의 simplicity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미 일반적인 generality한 단서의 한 형태로 본다.

www.artnstudy.com